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2.04.30 (통권397호)



## 경제이슈

유로존 위기 2라운드 가능성 증대  
1/4분기 성장률 2.8% 기록

## 경영노트

NFL의 동반성장 전략

## 사회 트렌드

리턴트族이 늘어난다  
美 청년들 대학 기피

## 저널 브리프

6가지 주제로 바라본 중국

## 洗心錄

사불급설(駟不及舌), 말의 신중함

□ 유로존 위기 2라운드 가능성 증대

- 최근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과 더불어 유럽 주요국들의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됨에 따라 유로존 위기가 다시 고조
  - 스페인 : 유로존 4위 규모인 스페인의 재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부실채권 등의 시장불안이 겹쳐지면서 26일 S&P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2단계 강등
  - 프랑스 : 최근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올랑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재정 긴축을 철회할 가능성 존재
  - 독일 : 4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46.3으로 2009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실물 경기의 둔화 우려가 증대
- 유로본드 발행 및 재정통합 등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는 이전보다 심화되고 세계 경제의 충격도 더욱 커질 우려

□ 1/4분기 성장률 2.8% 기록

-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8%, 전기대비 0.9% 증가
  - 소비 : 민간소비는 컴퓨터 등 내구재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의 소비가 늘어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정부소비는 예산조기 집행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기계류 부문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9.1% 증가
  - 수출 : 수출은 휴대폰, 철강 등이 줄었으나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
- 1/4분기 경제성장률은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생산 및 소비 심리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보여 향후 한국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NFL의 동반성장 전략<sup>1)</sup>

- NFL(미국 프로풋볼리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리그 몰락의 위기에서 동반성장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
  - NFL은 리그 출범 초기 뉴욕, 시카고 등 빅마켓 팀들이 우승과 수익을 독식하며 출범 후 40년 동안 무려 53개의 스몰마켓 팀들이 해체
  - 이후 구단들 사이에 스몰마켓 팀(중소기업)이 생존하지 못하면 빅마켓 팀(대기업)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
- NFL은 동반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동등한 경쟁여건 확립→전력의 상향 평준화→리그의 재미와 인기 상승→수익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
  - 빅마켓 팀들은 당장의 작은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리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의 창출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식
  - 구단 수익 중 일부(40%)는 타 구단들과 배분하는 대신 유사한 조건에서 오직 실력을 통한 우승 경쟁으로 나머지(60%) 수익 극대화에 노력

< NFL의 동반성장 전략 >

	내 용
수익 공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공유제(Revenue sharing)는 리그의 생태계가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시작</li> <li>· 각 구단의 중계권료 및 티켓 판매 수익 중 40%를 모아 전 구단에 동일하게 재지급하여 중소 구단들에게 최소한의 재정 여건을 보장</li> </ul>
상생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전년도 최하위팀이 신인 드래프트 1순위를 갖는 제도를 도입하여 리그의 전반적인 상향평준화를 시도</li> <li>· 글로벌 기업 외에 ‘언더아모(선수용 액세서리 제조사)’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중소기업과도 스폰서십을 체결</li> </ul>
연봉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봉상한제(salary cap)의 실시를 통해 각 구단의 유망 신인 발굴,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및 재무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유도</li> <li>· 동시에 연봉하한제(salary floor)를 도입하여 구단의 전횡을 방지하고 신인 및 무명 선수를 보호</li> </ul>

1) 본 자료는 ‘스포츠 마케팅의 제왕 NFL(조선일보, 2012.04.13)’을 요약 정리함

□ 리턴트족이 늘어난다<sup>2)</sup>

- 해외 유명 대학을 다니다 국내 취업을 위해 한국 대학에 편입학하는 이른바 리턴트(Return+ Student)족이 늘고 있음
  - 리턴트족이란 해외 취업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국내 대학으로 몰리는 유학생들을 말함
  - 특히 국내외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유명 외국대 간판에 의존하던 풍토가 사라지고, 인맥 교류, 한국문화 적응 등을 위해 일찌감치 국내 대학을 선호하는 문화가 유학생 사이에 퍼지고 있음
  - 수도권 소재 8개 대학의 지난 3년간 편입 지원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외국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은 2010학년도 3월 840명에서 올해 3월엔 160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지난 3월 위드유편입학원 조사)
  - 이들은 해외에서는 현지인에 비해 취업이 불리하고, 국내에서는 기업 문화에 대해 무지해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른바 ‘인간 샌드위치’가 될 위험이 있음

□ 美 청년들 대학 기피<sup>3)</sup>

- 미국 역사를 통틀어 자녀가 부모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았던 추세는 더 이상 ‘팩트’가 아니게 됐음
  - 젊은 층이 대학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함
  - 천신만고 끝에 학위를 받고 대학 문을 나서더라도 등록금을 충당하느라 빚진 수만 달러에 삶을 저당 잡히기 싫다는 것임
  - 미국의 4년제 공립대 졸업자 가운데 55%는 평균 2만 2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같은 학생 부채의 총액은 2009-2010년 미국인의 신용카드 빚 총액을 넘어서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미국의 25-34세가 학사 학위를 딴 비율은 40%대 초반으로, 55-64세와 엇비슷
  - 한국 젊은 층의 학위 취득 비율이 60-70% 가량인 것과 극명한 대조

2) “리턴트족이 늘어난다”(매경, 2012.4.25)

3) “美청년들 대학 기피, 성장까지 위협”(헤럴드, 2012.4.27)

□ 6가지 주제로 바라본 중국4)

■ 정치·경제·사회 등 6가지 주제를 통해 중국의 면면을 살펴봄

- ① 단일 국가라는 편견 : 중국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31개의 연합국가(United State of China)로 바라보아야 함
  - 지금도 위(베이징)·축(충칭)·오(상하이) 삼국시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 지역 고유의 특성이 뚜렷함
- ② 사회주의 국가라는 오해 : 소련식 사회주의는 34년 전인 1978년 개혁개방을 하면서 사라졌으며 지금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체제로 볼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07년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물권법을 통과시켜 사유재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③ 소득수준에 대한 편견 : 중국의 1인당 소득은 5000달러 수준으로 세계 순위 97위에 불과하지만 이 통계수치만으로 중국을 저소득 국가로 보는 것은 그릇 판단임
  - 국가 전체소비는 미국의 6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천만장자는 96만 명으로 2011년에는 세계 사치품 시장 1위(점유율 28%)로 나타남
- ④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에 대한 오해 : 흔히 중국의 금융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의 금융산업은 G2 수준임
  - 중국 4대 은행은 세계 10대 은행 순이익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증시의 시가총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임
- ⑤ 정부 발표 수치에 대한 해석 : 중국의 성장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8%에서 7.5%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⑥ 공산당 독재 지속에 대한 의문 : 서방국가들에서는 중국의 일당독재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의 일당독재 해체는 곧 중국의 멸망을 의미함
  - 중국 내에는 8000만 명의 공산당원과 7800만 명의 공산당 청년조직이 있어 인구 8.5명당 1명이 공산당원일 정도로 확고한 체제를 유지

---

4) '천만장자 넘쳐나는 31개 국가 '연합국'(이코노미스트, 2012.04.23) 참조

□ 사불급설(駟不及舌), 말의 신중함

올해는 선거의 해다. 지난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다가오는 12월19일에는 대통령선거가 또 있다. 선거의 해일수록 유권자의 귀에 달콤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복지공약이 그렇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편적 복지와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 공약 경쟁이 뜨거웠다.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공약은 듣기에 참 달콤하다. 그런데, 무상복지에 들어갈 돈, 즉 세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3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됐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가운데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 수준 향상을 원하고, 다수가 무상복지 서비스에 찬성하지만, 정작 복지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겠다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복지 관련 공약을 말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로도 쫓아가기 어렵다[一言既出(일언기출), 駟馬難追(사마난추)]는 옛말이 있다. 『論語』의 안연편에는 ‘사불급설(駟不及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혀에 미치지 못한다, 한번 나온 말은 주워 담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한 후보자들이 많았다. 공직 후보자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막말이 난무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 사마난추(駟馬難追), 사불급설(駟不及舌)처럼 말의 신중함을 얘기한 옛 성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3번 생각하여 1번 말하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나 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남을 배려하는 에티켓과 바른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부는 거름과 같아 축적만 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나,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 톨스토이(1828~1910) : 러시아의 대문호